

## 문법 기술 내용에 근거한 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 *How Are You?*의 경우

양 현 권  
(서울대학교)

---

Yang, Hyun-Kwon. (2000). Grammar-based organization of English teaching content.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3, 45-61.

This paper explores grammar-based organization of English teaching content, paying special attention to some grammatical properties of the expression "How are you?". The paper reports that "frequency" and "simplicity" are two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al principles, and proposes that full-scale detailed grammar description is the prerequisite for "simplicity-based" content organization.

---

### I. 서론

20세기의 후반에 걸쳐 영어 교육의 여러 분야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겪어 왔으며, 특히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문법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이해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영어 교육 방법론이 효율적인 교수 방법론으로 부각됨에 따라, 영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의 기능과 역할은 흔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짙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영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영어 교수 방법을 논의하는 여러 맥락에서 문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Rutherford(1987), Seliger(1979), Sharwood Smith(1981), Lightbrown과 Spada(1990), Ellis(1993), Brown(1994) 및 Schmidt(1995) 등의 논의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 구조로서의 문법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은 흔히 교육 문법 가설(Pedagogical Grammar Hypothesis)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설의 주된 요지는 영어 교육 내용 구성에 언어 구조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의사 소통 중심의 교수 방법론이 지니는 근본적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영어 교육에 있어서의 문법 및 문법 교육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성공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서 문법 사항을 어떻게 조직하고 구조화하여 가르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먼저 2장에서는 문법 또는 문법 기술 내용에 기초를 두어 영어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를 Greenbaum(1987), Celce-Murcia(1991) 및 Brown(1994) 등의 견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3장에서는 “How are you?”라는 표현과 관련된 문법 사항을 how의 범주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교육 내용 구성의 실재를 “How are you?”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II.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기준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문법 (교육)의 효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법 이론 또는 언어학의 연구 성과는 흔히 교육 내용 구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를테면, Celce-Murcia(1991, p. 460)에 따르면, 문법은 가르치는 내용과 그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를 제공한다고 한다.<sup>1)</sup> 이러한 파악은 Terrell(1991)이 문법을 선행 조직자(advanced organizer) 또는 입력 조직자(input organizer)로 파악하는 관점에서도 확

1). . . . no one challenged the centrality of grammar either as content for language teaching or as the organizing principle for curriculum or materials development.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법 및 문법 기술의 성과를 영어 교육의 내용 구성 및 그 조직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과 구조화를 위해 문법 및 문법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과 제시를 위한 문법의 활용 문제—에 대하여 Greenbaum(1987, p. 195)은 문법 항목 또는 학습 내용은 “용이함(easiness)” 및 “빈도(frequency)”에 따라 순서화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sup>2)</sup> 또한, Brown(1994, p. 364)은 영어 교육 내용 구성 요소로서의 문법 항목들은—각 문법 항목들의 “용이함,” “단순함,” “빈도”에 따라—선후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 선후 관계에 따라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항목의 순서와 내적 구성이 정해진다고 제안한다.<sup>3)</sup>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영어 교육의 내용 구성 및 조직을 위하여 문법 또는 문법 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항목은 흔히 “용이함,” “단순함 (simplicity)” 및 “빈도” 등의 기준에 따라 구성·조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기준 가운데 “빈도”라는 기준은 그 계량화와 실제 적용의 가능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존의 여러 연구—특히,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 방법론에 초점을 둔 연구—에서 문법 항목의 “빈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위에 제시된 기준 가운데, “용이함” 및 “단순함”이라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1) 가. 학습하기 쉬운 항목과 어려운 항목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는가?

---

2) . . . grammatical topics and material should be graded in various respects. Two principles seem appropriate, though they may not always harmonize: (a) those points that are recognized as easier to learn should come earlier in the book, and (b) the most frequent patterns and generalizations should come first.  
3) An attempt has been made to use the principles of simplicity and frequency in arranging the order of structures. Therefore, the more “complex” tenses and clause formation come later in the series.

나. 어떤 문법 항목이 단순하고 복잡한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즉, 영어 교육 내용을 구조·조직하기 위해 “용이함” 및 “단순함”을 문법 항목 제시와 구조화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 각 문법 항목의 “용이함” 및 “단순함”을 비교할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용이함” 및 “단순함”은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습 이론의 일반적 원리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에 비하여 학습하기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살펴보면 문제 (1)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어떤 문법 항목이 단순하고 복잡한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제 (2)에 대하여, 양현권(1999)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통 문법 또는 언어학 상식에 근거한 대강의 어림수가 제시되어 있을 뿐, 단순성 또는 복잡성의 결정에 관여된 구체적 원칙 및 실제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문제 (2)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How are you?”라는 표현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조직할 것인가를 그 주된 논제로 삼는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문제 (2)에 대한 실제적 탐구가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 Ⅲ. 의문사 *How*의 범주적 특성

다음은 영어의 기본적인 인사 표현 가운데 한 유형이다.<sup>4)</sup>

4) (3), (4) 및 (5)에 사용된 의문 표현 *how*는, 그 응답 표현의 의미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주체의 안부·상태 등 해당 시점에서의 전반적 정황 속성 (current attribute)에 관한 판단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3), (4) 및 (5)에 예시된 용법의 ‘*how*’를 “정황 속성 의문 표현” 또는 “속성 의문 표

- (3) How are you?
- (4) How was he?
- (5) How does she look?

위에 예시된 표현 가운데 (3)은 교육부의 6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영어 교과서—초등학교 영어의 첫 과정인 3학년 1학기 전반의 교과서와 중학교 영어의 첫 과정인 1학년 1학기 전반의 교과서—에 예외 없이 도입되어 있다. 다음 (6)은 교육부 6차 교육 과정에 근거한 이맹성 외(1994)의 *Middle School English 1*에서 인용한 것이다.

- (6) How are you?  
-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라는 표현이 이와 같이 영어 학습의 초기 과정에 소개 되는 까닭은 적어도 이 표현이 그 사용 빈도와 의사 소통 기능의 중요성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표현보다 앞서기 때문일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Sinclair와 Renouf(1988, p. 149)의 Birmingham Corpus에 대한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3)~(5)에 예시된 표현은—영어 교육 항목의 구성과 조직을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인—“구조의 단순함”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얼마나 단순·복잡한 것일까? 이제 이하의 논의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앞에 예시된 안부 묻기 표현의 구조적 측면, 특히 이들 문장에서의 “속성 의문 표현” how의 범주적 특징에 대해 양현권(간행예정)에 제시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문 표현 how는 전통 문법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학에서도 영어의 대표적인 의문사 가운데 한 가지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은 의문 방법 부사 how의 전형적 쓰임새를 보여주는 예이며,

- (7) How did you know we were coming?

---

현”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8) How are you going to get home?

다음은 (7)과 (8)에 예시된 how에 대한 Quirk 외(1985, pp. 557-9)의 해설을 인용한 것이다.

(9) An adverb manner adjunct can usually be paraphrased by *in a . . . manner* or *in a . . . way* with its adjective in the vacant position. . . . Manner adjuncts are generally elicited by *how*-questions, . . . .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문법 기술에서는 다음 (7)과 (8)에 예시된 how뿐만 아니라, (3)~(5)에 예시된 how도 부사적 범주로 파악한다. 다음은—고딕체는 필자의 첨가 사항임—*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에서 how 항목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며,

(10) **how** /hau/ *interro adv* 1 in what way or manner: How is the word spelt? o *Tell me how to spell it.* o *How did you escape?* o *Tell us how you escaped.* o *How are things going*(ie *Is your life good or bad*) *at the moment?* 2 in what state of health; in what condition: *How are the children?* o *How is* (ie *What is your opinion of*) *your job?* 3 (used before an adj or adv) to what extent or degree: *How old is she?* o *How long did you wait?* o *How often do you go swimming?* o *How fast can she run?* o *How much money have you got?*

다음 (11)과 (12)는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학습 사전 *Longman Dictionary of Comtemporany English*와 *Longm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 각각 옮겨 온 것이다.

(11) **how** /hau/ *adv* 1 (in questions)

b in what condition of health and mind: *How is your mother?* |

*How are you (feeling)? | I want to know how he feels about having to work at weekends.*

(12) **how** /how/ *adv*

3 in what state or condition (eg of health) <~are you?> <~is the market today?>

이와 같이 “속성 의문 표현” how를 예외 없이 부사 표현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대부분의 전통 문법적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는 바, 다음은 앞선 예 (6)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다.

(13) How are you?

- I'm fine. Thank you.

어떻게 지내세요?

- 잘 지내. 고맙다.

how [hau] (부) 어떻게

한편, (3)~(5)에 제시된 “속성 의문 표현” how는, 그 용례상의 특성으로 보아, 부사적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부사류 또는 부가어란 정의상 수의적(optional) 요소인데 반하여,<sup>5)</sup> “속성 의문 표현” how는 수의적 요소라기보다는 필수적(obligatory)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sup>6)</sup>

또한 “속성 의문 표현” how는, 그 응답 표현의 의미적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주체의 안부·상태 등 해당 시점에서의 전반적 정황 속성(current attribute)에 관한 판단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3)과 (5)에

5) 문장의 구성 요소를 서술어, 논항 및 부가어로 구분하는 경우, 서술어와 논항은 필수적인 요소인 반면 부가어는 수의적인 요소이다: Haegeman(1991, p. 44). 논항에는 주어, 목적어 및 보어 등이 속하고, 대부분의 부사류는 부가어에 속한다.

6) Quirk 등(1985, p. 507)에 따르면, 부사류는 대부분 수의적인 요소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운용된다.

He lived in Chicago.

cf. \*He lived.

Quirk 등에서는 이들 부사류 표현을 필수적 서술 부사류(obligatory predication adjunct)라고 칭한다.

서는 의문의 초점이 현재 시점에서의 주어의 정황 속성에 대한 판단에 있으며, (4)에서는 물음의 초점이 과거 어떤 시점에서의 주어의 속성에 대한 평가에 있다. 그런데 영어의 서술어의 특성에 대한 Declerk(1991) 및 Quirk(1985) 등의 관찰에 따르면 속성이라는 의미는 전형적으로 형용사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는—부사류라기 보다는—형용사적 범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의 이러한 특성은, Quirk 등 (1985, p. 733)에서도 지적되어 있다.<sup>7)</sup>

(14) [On the other hand,] *how* may be used in some instances to question these complements, as it is for adjective phrases functioning as complement.

한편, “속성 의문 표현” *how*가 부사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표현이 사용되는 문장의 술어의 특성에서도 드러난다.

- (15) a. How is the boy?  
       b. How does she feel?  
       c. How does she look?

위 예들에서 *how*는 “속성 의문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들 문장의 주된 술어는 “계사 (linking verb)”라고 불리는 소위 “2형식” 동사이다. “2형식” 문장의 주된 구성 요소가 “주어+계사+보어”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의 보어 범주로서의 지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sup>8) 9)</sup>

7) 다음은 (3)~(5) 등에 사용된 *how*에 대한 Quirk 등(1985)의 견해이다.

*How* is also used as a *wh*-word for a complement as current attribute (cf 10.20).

8) (15)에 예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와 함께 사용되는 계사는 *be*-동사이거나 지각과 관련된 동사—*smell*, *feel*, *look*, *sound*—이다. 그런데, 지각 관련 동사가 계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다음 Quirk 등(1985, p. 407)에



이상의 논의에서는 의문 표현 how가 방법 부사로서의 용법 이외에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 보어적 요소—특히, 형용사적 범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다음은 의문 표현 how의 또 다른 사용례에 해당한다.

- (16) How fine is the patient?  
- Much finer now.

대부분의 전통적 품사 범주적 기술에서는, (16)에 예시된 how를 정도 (degree) 부사로 파악한다. 다음은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서 인용한 것인데,

- (17) **how** /how/ *adv*  
2 (used before and *adj* or *adv*) to what extent or degree: *How old is she?* o *How long did he wait?*

이 용법으로서의 how는 다른 정도 부사 표현과 마찬가지로 뒤따르는 형용사(또는 부사)를 수식한다.

다음의 예 (18)에는 “정도 부사”로서의 how의 용례가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의 용례와 대비되어 있으며,

---

기술되어 있듯이, 보어적 요소로서 형용사가 사용된다.

Verbs with percept as subject (*smell, feel, look, sound*) have an adjective phrase as complement.

9) “속성 의문 표현” how 이외에, 의문 표현 where 및 when도 be-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 Where are you?  
- I'm in the kitchen.  
When's your birthday?  
- It's September 23.

의문 표현 where 및 when은, 그러나 “속성 의문 표현” how와는 달리, be-동사 이외의 다른 계사와 함께 사용될 수 없다.

- (18) a. **How fine** is he?  
 b. **How** is he?

다음 (19)에는, (18a)와 (18b)에 대한 응답이 함께 예시되어 있다.

- (19) a. How fine is he?  
 - *Pretty good.*  
 b. How is he?  
 - *Fine.*

(19a)와 (19b)에는 의문문 (18a)와 (18b)에 대한 응답이 형용사(구)로 실현되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18a)와 (18b)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      |           |   |    |   |     |
|------|-----------|---|----|---|-----|
| (20) | 보어/형용사 술어 | + | 계사 | + | 주어  |
|      | How fine  |   | is |   | he? |
|      | How       |   | is |   | he? |

즉, 의문사구의 범주적 특성이 해당 의문사구에 대한 응답의 범주적 특성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살펴보면, (18a)의 'How fine'과 (18b)의 'How'는 모두 형용사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Baker(1989, p. 317)에 따르면, 영어의 정도 표현은 그 피수식어인 형용사 표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구조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 (21) [AdjP [Deg how] [AdjP fine]]

(21)은 Baker(1989)의 다음과 같은 제안에 근거한 것으로,

10) 분포(distribution)에 따른 품사분류 체계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는 Fries(1954)를 참고하기 바람.

(22) A degree expressions and an adjective phrase can combine to create a larger adjective phr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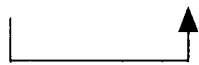
(21)에 예시된 구조를, Jackendoff(1977) 등의 표준화된 X-층위(X-bar) 구 구조로 표현하면 다음 (23)을 얻을 수 있다.

(23) [AdjP [DegP how] [Adj fine]]

(23)에서는 (형용사)구의 중심적 요소로서의 “Adj”가 핵(head)에 위치하여 있고, “DegP”는 전체 구의 지정어 위치를 점하고 있다. 앞선 논의에 근거하여 (18a)의 ‘How fine’과 (18b)의 ‘How’의 통사 범주적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이해한다면, (18b)의 ‘How’의 구구조 핵은, (18a)의 ‘How fine’의 구구조 핵이 형용사 범주인 것과 같이, 형용사 범주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4) [AdjP [Adj how]]

양현권(간행예정)에서는 의문 표현 how의 이러한 이중 범주적 속성을 Pennanen(1971), Adam(1973), Bauer(1983) 및 Baker(1989)에서 논의되는 품사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하려 시도하였던 바, 보다 구체적으로는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가 본디 부사적 범주이지만 “속성 의문 표현”의 자격으로는 형용사 범주로 여겨지는 현상을 부사적 범주가 핵 융합(head incorporation) 과정을 거쳐 형용사적 범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이해의 골자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5) [Adj [Deg ] [Adj how]]  


(25)에서는 부사적 범주로서의 정도 부사가 형용사 핵으로 전환되어 있다.

#### IV. 교육 내용 구성의 실제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다음에 예시된 예에서의 how라는 표현은 그 문법 범주의 특성에 있어서 유표적(marked)이라고 할 수 있다.

- (6) How are you?  
- I'm fine. Thank you.

즉, how라는 의문 표현은 영어의 전반적인 문법 체계상 본디 부사적 범주인데,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는 형용사적 특징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속성 의문 표현” how의 학습은 전형적 부사로서의 how의 학습에 비해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선 논의에서 인용되었던 것으로, (6)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을 재인용한 것이다.

- |                        |                   |
|------------------------|-------------------|
| (13) How are you?      | 어떻게 지내세요?         |
| - I'm fine. Thank you. | - 잘 지내. 고맙다.      |
|                        | how [hau] (부) 어떻게 |

2장의 논의에서는, “빈도”라는 기준에 비추어 교육 내용의 구성을 논의하는 경우, “How are you?”라는 표현이 학습의 초기에 도입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3장에서 논의 결과를 교육 내용 구성의 또 다른 원리인 “용이함” 및 “단순함”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는 영어 학습의 초기에 도입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갈등적 상황을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 방법론의 시각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빈도”라는 기준이 “용이함” 및 “단순함”에 비하여 보다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수 방법론에서는 “문법 또는 언어 구조”에 대한 고려보다는 “언어의 사용 또는 상황”에 대한 배려가 우선하기 때문이다.<sup>11)</sup> 이는 곧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의 문법

범주상의 유표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How are you?”라는 표현이 영어 학습 초기에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중요한 것은 “How are you?”를 도입할 때 이 표현과 관련된 문법 사항을 얼마나 제시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2장의 논의에 근거하여 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 “How are you?”와 관련된 문법 사항 가운데 무표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제시한다는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삼아, 다시 예 (6)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해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13) “속성 의문 표현”으로서의 how에 대한 전통적 이해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 I'm fine. Thank you.	- 잘 지내. 고맙다.
	how [hau] (부) 어떻게

(13)에 제시된 정보를 문법 항목 및 문법 사항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6) a. 의문사 how
- b. be 동사 구문
- c. 2인칭 대명사
- d. 의문사 의문문(WH-Question)

(26)에 열거된 문법 사항 가운데—앞에서의 논의가 그러하였듯이—의문사 how와 관련된 문법 항목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우선 how의 “범주”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3장의 논의에서는 “속성 의문 표현” how의 범주가, (13)에 제시된 바와는 달리, 형용사임을 논의하였다. 문제는 형용사 범주로서의 how가 유표적 특징을 지닌다는 데 있다. 즉, “용이함” 및 “단순함”의 기준에 따르면, how의 형용사적 특징은 how의 부사적 속

---

11)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 방법론이 문법 교육에 대해 지니는 기본적인 시각에 대한 논의는 양현권(1999)를 참고하기 바람.

성에 비하여 학습하기에 어렵고 복잡하므로 교육 내용으로 보다 나중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교육의 실제에서는—(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속성 의문 표현” how를 부사적 범주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ow의 범주적 특징을 “How are you?”라는 표현을 도입하는 시기에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 번역의 과정을 수반하는 경우에 두드러진데, 그 까닭은,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How are you?”라는 표현의 how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번역이 한국어 부사 표현 “어떻게”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습 내용으로서의 “How are you?”의 도입과 더불어 한 가지 더 논의될 수 있는 사실은, 이 표현을 도입하는 시기에, 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2형식” 구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부의 6차 교육과정에서 근거한 8종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 모두에서 관찰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성의 배경에는 “How are you?”라는 구문이 2형식 구문이라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으며, 이는 곧 “속성 의문 표현” how를 형용사로 파악하는 관점인 것이다. 그런데, 앞선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용사로서의 “속성 의문 표현” how는 부사로서의 how보다는 유표적이어서 학습하기에 어렵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본 논문에서는 문법 및 문법 기술의 성과를 영어 교육 내용의 구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빈도,” “용이함,” 및 “단순함”이 그 적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영어의 기본적 인사 표현 “How are you?”를 영어 교육 내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학습 항목이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를 사례 조사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론적 제안은, 만약 의사 소통 기능 중심의 교수 방법론을 활용하는 경우, (가) 먼저 “빈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나) 다음으로—학습 대상 표현과 관련된 여러 문법 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을 먼저 제시할 것인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무표적, 즉, 단순하고 학습하기에 용이한 항목에 우선적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러한 제안이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의 3장에 제시된 것과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서, 영어의 제반 문법 항목에 대한 체계적

이고 철저한 분석이 병행 또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2). 제6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 (1997). 제7차 외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5호.
- 문 용. (1987). 고급영문법해설. 박영사.
- 문 용. (1998). 영어품사론. 한국문화사.
- 문 용. (1989). 학교문법론. 서울대학교 사대논총, 38, 39-59.
- 심명호, 문용, 권오량, Rebecca Wilson. (1988). *Middle school English 1*. 교학사.
- 심명호, 문용, 권오량, Rebecca Wilson. (1988).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교학사.
- 양현권. (1999). 영어 교육 내용 구성 원리로서의 문법 이론. *외국어교육연구*, 2, 71-89.
- 양현권. (간행예정). 의문 표현 How의 범주적 특성. *어학연구*, 37.
-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정정호, 양현권. (1994). *Middle school English 1*. 지학사.
- 이맹성, 황적륜, 김영석, 김길중, 정정호, 양현권. (1994). *Middle school English 1: Teacher's guide*. 지학사.
- 황적륜. (1973).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문법에 관하여. *신영어교육*, 1, 19-21.
- Adam, V. (1973). *An introduction to modern English word-formation*. Longman: London.
- Baker, C. L. (1989). *English syntax*.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Baker, M. C.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Bauer, L. (1983). *English word-form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London.

- Bolinger, D. (1967). 'Adjective comparison: A semantic scale'.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1, 2-10.
- Brown, H. D.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Prentice-Hall.
- Celce-Murcia, M. (1991). Grammar pedagogy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25(3), 459-480.
- Celce-Murcia, M.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 Coates, J. (1971). 'Denominal adjectives: A study in syntactic relationships between modification and head'. *Lingua*, 27, 160-169.
- Declerck, R. (1991). *A comprehensive descriptive grammar of English*. Kaitukusha: Japan.
- Ellis, R. (1993). Structural syllabu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27(1), 91-113.
- Fries, C. C. (1954). *The structure of English*. Harcourt: New York.
- Greenbaum, S. (1987). Reference grammar and pedagogical grammar. *World Englishes*, 6(3), 191-197.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lackwell: London.
- Jackendoff, R. (1977). *X' syntax: A study of phrase stru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Levi, J. N. (1973). 'Where do all those adjectives come from?'. *Papers from the Regional Meet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9, 332-45.
- Lightbrown, P., & Spada, N. (1990). Focus-on-form and corrective feedback i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Effects on second language learn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 186-214
- Marchand, H. (1969). *The categories and types of present-day English word-formation*. C. H. Beck: Munchen.



- Pennanen, E. V. (1971). Conversion and zero-derivation in English, *Acta Universitatis Tamperensis*, ser. A. 40.
- Pope, E. N. (1976). *Questions and answers in English*. Mouton: The Hague.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Rusiecki, J. (1985). *Adjectives and comparison in English: A semantic study*. Longman: London.
- Rutherford, W. E. (1987). *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Longman.
- Seliger, H. W. (1979).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language rules in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13, 359-369.
- Sharwood Smith, M. (1981). Consciousness-raising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Applied Linguistics*, 2(2), 159-68.
- Sinclair, J. M. and A. Renouf. (1988). A lexical syllabus for language learning.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 London.
- Tucker, G. H. (1998). *The lexical grammar of adjectives: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 to lexis*. Cassell: London.
- Venneman, T. (1972). Rule inversion. *Lingua*, 29, 209-42.
- Wood, F. T. (1959). Fairly, rather and pretty as adverbs of degree. *Moderna Sprak*, 53, 372-381.
-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 Collins cobuild English grammar*. Harper Collins Publishers: London.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London.
- Longm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London.
-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